

북유럽으로 간 언어학자*

- 조승복(1922-2012)의 삶과 한국어 연구 · 교육 -

허인영**

〈차 례〉

- 머리말
- 조승복의 삶
- 조승복의 한국어 연구 · 교육
- 맺음말

[국문초록]

조승복(趙承福, 1922-2012)은 만주국에서 태어나 일본과 미국을 거쳐 스웨덴에서 평생을 연구와 교육에 종사한 언어학자이다. 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의 굴곡을 보여주는 데다가, 그의 한국어학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한국어학과는 다른 특색이 보인다. 또한 북유럽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로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어떻게 해서 철학에서 언어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콜린데르 교수의 권유와 함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강연 ·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민족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그가 만난 한국어학자들과, 말년에 힘을 쏟은 동질성 회복 운동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그의 한국어학 연구와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한국어학 지식은 식민지 시기 일본학자의 연구와 1950-60년대에 이루어진 남북한의 성과를 섭렵했다는 점에서 분단 상황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남북한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한 지식은 그의 저서인 『조선어 음운론』(1967)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그는 역사 · 사회적인 관점을 가미한 고대 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국어 어휘 및 언어 동질성 회복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북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효시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제어] 조승복, 비에른 콜린데르, 베른하르트 칼그렌, 스웨덴, 『조선어 음운론』, 북유럽의 한국학, 북유럽의 한국어 교육

1. 머리말

이 글은 언어학자 조승복(趙承福, 1922-2012)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그의 한국어학 연구와 교육에 대해 오늘날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제국대학에 유학했던 조선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정종현(2019)의 부제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이다. 그런데 일본의 제국대학에 유학했던 조선인 중에는 해방 후에도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아 있거나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있었다. 이 글에서 소개할 조승복도 그런 이들 중 한 명이다.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조승복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의 논저를 읽으면서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글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조승복 교수는 일제강점기 만주국에서 태어나 일본, 미국을 거쳐 스웨덴으로 건너가 스톡홀름대학교의 초대 일본학 교수가 된, 파란만장한 삶을 산 한국인 연구자이다. 남과 북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았던 그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다.”(허인영 2022: 72, 각주 4) 조승복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국제인’이자 ‘디아스포라’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스웨덴에 정착한 1960년대부터 한국의 몇몇 신문에서 그의 소식을 다룬 적이 있었으나 관심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승복이 별세한 지 2년 뒤인 2014년 『국제한국사학』에 그의 생애를 다룬 글(변광수 2014)과 그에

대한 감상(김영호 2014)이 실렸다. 정종현(2019)에서는 조선인 유학생이 일본 내지(内地)의 제국대학을 선호한 이유와 일본 제국의 관비 유학생을 다루면서 조승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경화(2022)에서 조승복의 삶을 재일조선인의 전후사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2023년 2월 24일 스톡홀름대학의 아시아중동학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블라디미르 티호노프(Владимир Тихонов, 오슬로대), 소냐 호이슬러(Sonja Häussler, 스톡홀름대), 임경화(중앙대), 조원형(서울대) 등이 조승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하였다.¹⁾ 단국대학교 사학과와 심재훈 교수는 네이버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조승복의 삶과 관련된 글을 10회에 걸쳐 연재하였다(심재훈 2023-2024).

삶의 궤적이 독특한 만큼 그에 대해 주목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학문적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학, 특히 한국어학 연구를 소개·평가하는 글은 없었다. 그의 주저(主著)인 Cho(1967)에 대한 몇몇 국외 학자의 서평이 있는 정도이다. 한국 학계가 한국 밖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그의 연구를 평가하기는커녕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것은 한국어학계가 얼마나 닫혀 있는 곳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조승복의 삶을 언어학과 그가 만난 한국어학자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학 가운데 한국어학의 연구와 교육에 대해 개괄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가 쓴 논저들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입장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할 것이다.

1) 이들 중 블라디미르 티호노프(한국명 박노자)는 몇 년 전 한 신문 칼럼에서 조승복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였다. 박노자(2018, 2024) 참조.

2. 조승복의 삶²⁾

조승복의 지리적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도에서 일본, 미국, 스웨덴으로 옮겨갔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크게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철학에 심취하는 20대까지의 삶과, 언어학으로 전향하여 교수로 자리잡게 되는 30대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와중에 다양한 학자들, 특히 한국어학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났다. 이러한 학문적인 여정과는 별개로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조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삶을 살았다. 이하에서는 그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

1) 철학도로서의 삶

조승복(趙承福)은 1922년 무렵 간도의 이도구(二道溝) 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언어적 배경에 대해서는 자서전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조선인 이민사회에서 공통어로 사용된 30년대의 사회 방언은 서울말과 간도 토백이 말이 종합혼성되어 생긴 말이었다. 이 두 방언(方言)이 통정촌 시민사회의 상층방언(上層方言)을 이루고 있었다. 서사어(書寫語)로 쓸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상층 사회방언(社會方言)”이라고 불렀다. “서울말”은 신문, 잡지, 및 문학 작품을 읽어서 배운 말이었기 때문에 서울 서사어가 간도 조선어의 중심이 되었다. “간도 토백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동-간도 — 현 연변(延邊) 지역 — 에 제일 먼저 이사해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옛날 육진(六鎭)에서 이사해온 사람들을 역사적으로는 “간도 토백이”라 한다.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 통정촌 사회 방언의 심층에 잠재하고 있다. “간도 토백이” 가정에서는 지금도 토백이 방

2) 이 장에서는 조승복의 언어학자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조승복(2004)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의 삶 전반에 대해서는 조승복(2004)와 그 요약인 변광수(2014), 심재훈(2023~2024) 및 임경화(2022)로 미룬다. 이하에서 출전은 조승복(2004)의 직접 인용인 경우에만 (상/하: 쪽수)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언 — 옛날 六鎮語 — 이 사용되고 있다. 육진(六鎭)에 살던 사람들이 이민해온 후에 간도지역에 이사해온 이민들의 방언이 섞여서 생긴 것이 내가 들은 30년대의 룡정촌 사회의 하층방언이었다. 구두어(口頭語) 사용은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상층방언은 만주와 조선에서 발간된 조선어 신문과 잡지 및 문학 작품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었다. 룡정촌 시민사회의 상층 방언을 전파한 사람들은 육개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었다. (상: 86)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조승복은 일대의 조선인 수재들이 입학하는 용정(龍井)의 광명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39년 봄에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으로 가는 관비 유학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시 시험을 거쳐 도쿄(東京)의 제일고등학교(第一高等學校)³⁾에 입학한 조승복은 3년 동안 당대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서양의 과학과 문화를 배우는 한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도 습득하였다.

조승복은 1942년 봄에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강 문제로 6개월 쉬었다가 같은 해 9월에 도쿄제국대학 철학부에 입학하였다. 비슷한 시기 도쿄제국대학 대학원 언어학과에는 훗날 월북하여 북한의 언어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크게 기여하는 김수경(金壽卿, 1918-2000)이 재직하고 있었다.⁴⁾ 조승복은 대학 재학 중 일제의 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미군이 진주하면서 설치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에서 일본어 우편 검열을 위한 번역자로 취업하였다. 이때 일본의 언어학자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12-1998)를 만나 김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3) 1886년 메이지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구제고등학교(舊制高等學校)로,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교(豫備校)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기에 엘리트 양성소로 이름을 떨쳤다. 약칭 일고(一高).

4) 조승복과 김수경은 도쿄제국대학 출신(김수경의 학부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점 외에, 철학을 전공하고 언어학으로 전향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조승복은 김수경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1994년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김수경의 첫 번째 아내인 이남재를 만난 적이 있다(하: 1070). 김수경의 삶에 대해서는 板垣竜太(2021) 참조.

河野 씨도 해방 후 조선서 귀국하여 일자리가 없어서 한 때, 미국 점령군에서 번역하며 생활한 일이 있다. 나도 점령군에서 번역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서로 알게 되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자기가 조교수로 있을 때, 김수경 씨가 조수였다고 하며 김씨의 언어학 재주를 칭찬하였다. 프랑스어를 해독하는 조선사람이 드문 때에 프랑스어를 잘 해독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상: 164)

얼마 지나지 않아 조승복은 GHQ 종교연구조사반의 만주와 조선의 종교 전문가로 전직하면서 전후 일본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된다. 전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베르그송H. Bergson 철학에서의 개념, 지속La Dure 에 관하여(H. Bergson 哲学に於ける「持続」に就いて)」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946년 9월 대학을 졸업, 문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중세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고자 하였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귀국을 미루던 그는 미국인 선교사에게서 미국행을 제의받고, 1948년 미네소타로 건너가 9월부터 미네소타주립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얼마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 미국에서 한국전쟁 참전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조승복은 미국이 참전하면 한반도는 다시 강대국의 손으로 넘어가서 통일된 조국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전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경고 끝에 그의 체류 연장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자진 출국의 행선지를 고민하던 조승복에게 후원자 중 한 명이 중립국인 스웨덴을 추천하였다. 미국을 떠난 그는 1951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를 거쳐 1952년 1월 스웨덴에 입국하였다.

2) 언어학자로서의 삶

스웨덴에 온 조승복은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머무를 결심을 하고, 1477년 세워진 유서 깊은 대학인 옘살라대학의 도서관에서 중국과 일본의 고서

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1953년, 한국전쟁은 휴전되었으나 중단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자 스웨덴 여러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에게 접촉하였다.

그즈음 조승복은 옅살라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비에른 콜린데르(Björn Collinder, 1894-1983)⁵⁾ 교수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콜린데르는 우랄어족과 알타이제어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한국어와 알타이제어가 친족 관계에 있다는 핀란드어의 언어학자 람스테트(G. J. Ramstedt, 1873-1950)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콜린데르 교수는 조승복에게 프로젝트의 연구조수로 참여하기를 요청했는데, 언어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조승복은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콜린데르 교수의 설득과 함께 스웨덴에 부족한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게 좋겠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언어학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하였다.

조승복은 1953년부터 콜린데르 교수의 연구조수로서 일반언어학 및 비교언어학 강의를 들으면서 언어학의 기초를 쌓는 한편, 스웨덴의 저명한 중국(어)학자인 베른하르트 칼그렌(Bernhard Karlgren, 1889-1978)에게서 고대 중국어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였다. 1954년에는 한국어 음운론을 다룬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59년에 초고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저서로, 1967년에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조선어 음운론)”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그의 연구 문제는 순수한 원시 한국어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대 중국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1960년부터 칼그렌의 지도로 석사과정을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On the Ancient Chinese dialect from which the Sino-Korean Lateral Final is derived”로 석사학위를 받았다.⁶⁾ 1957년부

5) 조승복의 자서전을 비롯해 그가 쓴 글에는 이름이 일관되게 ‘콜린더’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콜린데르’로 적었다.

6) 필자는 아직 이 논문을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 다만 제목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한자음 가운데 ‘發(발)’, ‘達(달)’, ‘喝(갈)’ 등 종성으로 /-ㄹ/을 갖는 것들의 기원을 고대 중국의 특정 방언에서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수(隋)·당(唐) 시기의 중국어 발음인 중고음(中古音)에서 이러한 한자들의 종

터는 옘살라대학에서 한중일 3개 국어의 어학 강의를 하는 한편, 북유럽과 독일의 학술지에 동양의 언어·역사·사상과 관련한 서평과 논문을 발표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업적을 쌓았다.

1960년대 초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대학에 중국학과 일본학 교수직이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전념하던 그는 애초에 일본학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⁷⁾ 중국학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 스웨덴에서 교수직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비정규직인 도슨트(docent)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칼그렌은 자신의 제자인 예란 말름크비스트(Göran Malmqvist, 1924-2019)를 스톡홀름대학 중국학 도슨트로 삼았고, 콜린데르는 조승복을 옘살라대학의 도슨트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조승복의 도슨트 심사를 맡은 칼그렌은 자격을 한국학으로 제한해 버렸다. 당시 상황에서 한국학 전공으로 교수직이 설치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조승복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다.

칼그렌은 조승복에게 일본학 교수직이 생길 테니 거기 지원해 보라고 하였고, 조승복은 스톡홀름대학 중국학 교수직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일본어학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한 그는 1963년 “A Phonological Study of Early Modern Japanese”의 상권 초고를 완성하였고, 1964년 스톡홀름대학의 일본학 도슨트가 되었다. 1970년에는 “A Phonological Study of Early Modern Japanese”가 상하권으로 출간되었다. 1972년에 스톡홀름대학의 일본학 교수직 공고가 났다. 조승복은 우여곡절 끝에 1975년 4월, 스톡홀름대학의 일본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스웨덴에 망명한 지 23년이 지난, 그의

성은 입성(入聲) /-t/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羅常培(1933) 등이 당·오대(五代) 서북 방언의 발음에서 중고음의 /-t/가 [r]로 반영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조승복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을 것이다. Cho(1967)의 참고문헌에 羅常培(1933)이 보인다.

7)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서양 철학을 선택한 것이, 그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니, 우리 한민족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인가 보다.”(조승복 1988: 284) “낯선 외국 땅에서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택한 일본어 교수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뿔뿔히 못해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변광수 2014: 29)

나이 53세 때의 일이었다.

그 뒤로 그는 스톡홀름대학과 옅살라대학에서 일본학과 한국학 강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한편, 한국 학계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언어학 연구도 지속하였다. 한국 신문에 조승복의 기사(金鎭炫 1966)가 나간 뒤 스웨덴 유학을 꿈꾸는 한국 젊은이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의 변광수(옅살라대학 석사, 스톡홀름대학 박사, 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스웨덴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⁸⁾ 1989년에는 스톡홀름대학에 한국학과와 교수직을 설치하여 지역 일대의 한국어 강의와 시험을 주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북유럽에 한국학 및 한국어학의 씨를 뿌렸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을 뒤늦게나마 인정받아 1999년에는 동송학술재단으로부터 제3회 동송학술공로상을 수상하였다.

3) 한국어학자와의 교류

이 절에서는 조승복과 한국어학자들과의 만남을 시간 순서에 따라 소개하기로 한다. 자서전에 학술적인 대화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일생 동안 접촉한 한국어 관련 학자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어학과 관련된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학사적인 의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조승복은 1967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개월 동안 일본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이때 모스크바를 경유하였는데, 그곳에서 그가 만난 러시아(당시 소련)의 한국어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8) 이현복(李炫馥, 1936-,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또한 스웨덴에 머무른 적이 있다. 이현복의 회고(이현복 2015)에 따르면 그는 1962년부터 런던대학에 유학하였고, 1965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조승복을 만났다. 조승복의 초청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옅살라대학과 스톡홀름대학에서 음성학 및 음운론과 한국어 강의를 하였다.

5월 22, 27일: 모스크바대학 동양학부 조선어과-마주르⁹⁾, 니콜스키¹⁰⁾, 콘체비치¹¹⁾

당시 홀로도비치¹²⁾는 상트페테르부르크(당시 레닌그라드)의 언어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다. 그의 한국어 연구 업적을 익히 알고 있었던 조승복은 홀로도비치를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단념하였다. 이 때 콘체비치는 니콜스키가 『조로대사전(朝露大辭典)』 편찬을 계획 중이었다고 말하였는데, 이후 1977년 신문기자인 니콜스키의 아내가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조승복에게 완성된 사전을 전달했다(상: 410).

분단 이후 남북한이 각자의 독재정권하에서 나름의 안정을 찾으면서, 제 3국인 스웨덴에 있는 그에게도 각 정부의 방문 요청이 있었다. 1969년 조승복은 한국에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였다.¹³⁾ 그가 이때 만난 한국어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3월 24일: 서울대-이승녕, 김방한, 이기문, 최현배 등

3월 26일: 숙소-박창해, 김석득

-
- 9) 마주르(Ю. Н. Мазур, 1924-1998)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의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이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양언어연구소에 재직하였다. 그는 많은 사전을 편찬하는 한편, 한국어의 형태론과 관련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그의 생애와 연구에 대해서는 칼리나(2022) 참조.
- 10) 니콜스키(Л. Б. Никольский, 1924-1997)는 모스크바의 군사외국어대학 영어-한국어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동양어학과에서 오래 근무한 뒤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수로 근무하였다. 본문에 언급한 대사전을 비롯한 몇 권의 사전과 함께 한국어의 문법 요소에 대한 논문들을 남겼다. 그의 생애와 연구에 대해서는 칼리나(2024) 참조.
- 11) 콘체비치(Л. Р. Концевич, 1930-)는 모스크바동방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서 일했다. 1973년 『훈민정음』을 처음 러시아어로 번역하였고, 한국어의 키릴 표기법인 '콘체비치 체계'를 만들었다. 아들인 막심 콘체비치(М. Л. Концевич, 1964-)는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이다.
- 12) 홀로도비치(А. А. Холодович, 1906-1977)는 극동대학 동양학부와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를 독학하여 1930년대부터 한국어의 형태론과 계통론, 중세한국어에 대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60년대 이후로는 레닌그라드 언어학 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홀로도비치 학파' 또는 '레닌그라드 유형론 학파'로 불리는 소련의 언어유형론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생애와 연구에 대해서는 김태우(2020, 2021-1, 2021-2) 참조.
- 13) 1967년에 일어난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박정희 독재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 이 때문인지 부인 로즈는 방한에 동행하지 않았다.

3월 29일: 숙소-황희영, 박창해 / 한글학회-최현배, 정인섭, 정인승, 김선기, 허웅

4월 1일: 서울대-이승녕 등

서울대의 이승녕(李崇寧, 1908-1994, 국문과), 김방한(金芳漢, 1925-2001, 언어학과), 이기문(李基文, 1930-2020, 국문과)과는 모두 초면이었는데, 그중 김방한은 金鎭炫(1966)을 읽고 자신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 친근감을 느꼈다(상: 440). 3월 24일의 오찬에는 최현배(崔鉉培, 1894-1970, 당시 연세대 국문과 명예교수)도 참석하였다.¹⁴⁾ 3월 26일에는 경희대를 방문하여 주요섭의 문학강의를 들었는데(상: 444), 그날 밤 10시에 연세대 국문과의 박창해(朴昌海, 1916-2010, 당시 교수)와 김석득(金錫得, 1931-2023, 당시 강사)이 찾아왔다. 박창해는 조승복의 『조선어 음운론』을 읽었다고 하며 사이시옷의 음운론적 처리 방안을 묻는 등 학술적 토론을 하였다(상: 447-448). 3월 29일에는 중앙대 국문과의 황희영(黃希榮, 1922-1994)이 찾아왔다. 오후에는 한글학회의 간부들과 오찬을 하였는데, 최현배, 정인섭(鄭寅燮, 1905-1983, 당시 한국외대 대학원장), 허웅(許雄, 1918-2004,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과는 문통이 있었으나 정인승(鄭寅承, 1897-1986, 당시 건국대 국문과 교수), 김선기(金善琪, 1907-1992, 당시 명지대 대학원장)와는 초면이었다.¹⁵⁾ 숙소에 돌아오니 박창해가 다시 찾아와 자신의 한국어 문법을 영문으로 번역 출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상: 455). 4월 1일에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이승녕을 비롯한 7~8명의 교수들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좌담회를 가졌다(상: 464-465).¹⁶⁾

14) 최현배는, 서울대 언어학자와 한글학회 언어학자들이 회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조승복을 위하여 오찬에 참석했다고 한다(상: 440).

15) 이 오찬에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아무도 초대되지 않았다. 조승복은 이에 대해 “민족어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성립된 한글 학회가 일제통치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오늘날 일제가 남겨둔 편견에 찬 교육관과 인재관에 구애하여 관학(官學, 서울대학교) 선생들을 경원하는 것은 한글학회의 창립정신에 어긋나는 듯한 감이 들었다.”(상: 456)라는 평을 남겼다.

16) 당시 동백림 사건으로 나라 안이 떠들썩하던 때였다. 조승복이 사형 선고에 대해 “혹희이구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다가 철학과 교수 하나가 “지금 동백림 사건으로 잡혀 온 사람들은 죄 없는 애국자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신철학의 기초를 세운 박종홍이었다(상: 465).

1970년 7월에는 조선노동당의 초청으로 아내 로즈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에서는 지도원의 안내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김일성대학에서는 지식 향상 기관이 아닌 낙하 기관이라는 인상을 받았다.¹⁷⁾ 그가 이때의 방북에서 만난 한국어학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7월 23일: 사회과학원-김병제¹⁸⁾, 최정후¹⁹⁾, 서운범(국어사정의 지도처 처장)

7월 25일: 김일성대학-렴종률²⁰⁾, 황연순·권승모(조선어학부 교원)

7월 26일: 숙소-리극로²¹⁾

7월 23일 오후에는 사회과학원 학자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서운범이 문화어 사정의 기준과 규정, 사이시옷 그리고 잡지 『문화어학습』에 대해 길게 설명하였고, 김병제, 최정후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이때 김수경의 소식을 알고 싶어 제자인 최정후에게 물어보았으나, 서운범이 말을 가로채어 김수경은 학생들과 학습지도를 하고 있어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다(상: 500-501). 7월 25일에는 김일성대학의 한국어 수업 상황과 연구

17) “조 교수는 “남조선과 북조선을 다녀 보니 학문적으로는 남조선이 훨씬 자유롭고 우월하다.”는 말을 하시곤 하였다. 한 쪽만이 아니고 남북 양쪽을 모두 직접 접해 보고 나서 토로한 슬회이니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현복 2015)

18) 김병제(金炳濟, 1905-1991, 당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는 한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윤재(李允宰, 1888-1943)의 사위로, 배재고보의 조선어 교사로 일하다가 1948년 월북한 뒤 김일성대학 언어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글맞춤법 해설』(1946), 박사논문이기도 한 『조선어방언학개요』(1959, 1965, 1975), 『조선어학사』(1984), 『조선언어지리학시고』(1988) 등이 있다. 송승복은 Cho(1967)에서 『조선어방언학개요』를 인용한 바 있다.

19) 최정후(당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부소장)는 『조선어학개론』(1983), 『조선말력사어음론』, 『조선어규범변천사』(2005)를 저술하였다. 자서전에는 ‘최정우’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20) 련종률(廉宗律, 당시 김일성대학 조선어학부 부장)은 한국어사 전공자로 그중에서도 문법사와 훈민정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 『조선어문법구조사』(1964, 박사논문), 『조선어문법사』(1980), 『조선어내적발천역사연구』(1990), 『조선말력사문법』(1992), 『조선말 단어의 유래』(2001) 등이 있다.

21) 리극로(李克魯, 1893-1978, 당시 조국평화통일전선 중앙위원장은) 독일 베를린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1929년 귀국하여 한국어 연구에 투신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광복 이후 1948년 평양을 방문했다가 그대로 남아 줄곧 고위직을 맡았다. 저서로 『실험도해 조선어음성학』(1947), 『고투 40년』(1947), 『조선어 조(調) 연구』(1966) 등이 있다.

시설을 구경하고 교수들과 오찬을 하였다(상: 502-503). 7월 26일에는 리극로가 불쑥 숙소로 찾아왔다. 이야기는 베를린 유학부터 시작하여 조국평화통일전선, 김일성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당시 그는 역점(力點, stress)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상: 504-505).

1970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알타이어학 학술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랍스테트의 한국어 알타이어설에 대해 강연하였다. 당시 조총련의 지인들이 조선대학교의 선생을 데리고 가달라고 하여 박정문²²⁾과 함께 갔다. 박정문은 조승복의 강연이 끝난 뒤 강연 내용과 무관한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였다.

1972년에는 일본 도쿄와 교토에서 일본 펜(P.E.N.) 클럽이 주최한 일본 문화연구 국제회의(11월 18-25일)에 참석하였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번역에 대한 강연을 한 이후 조직된 패널 토론에 서울대의 이송녕, 이기문이 참석하였다(상: 565-567).²³⁾

1978년에는 일본 도쿄대 초청으로 6-9월 동안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공개 강연을 하였다. 당시 도쿄대 공학부 연구소에 객원교수로 와 있던 서울대 언어학과와 이현복이 찾아와 강연을 들었다. 객원교수 임기가 끝나자마자 고향과 친척을 찾아 중국을 방문하였다.

9월 12일: 연변대학-정판룡²⁴⁾, 최윤갑²⁵⁾, 현룡순²⁶⁾

22) 박정문(朴正文, ?-1983)은 간노 히로오미의 자전적 기록(菅野裕臣의 Aütobiografio, 이하 'Aütobiografio')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저서로 『조선어사 연구논문집』(1984)이 있다.

23) 조승복은 패널 토론에서 접한 이송녕의 일본어가 발음과 어조에서 교양 있는 일본인의 일본어가 가까우며, 정치적으로는 북쪽에 대해 중요심을 가진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평하였다(상: 567-568).

24) 정판룡(鄭判龍, 1931-2001, 당시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총비서)은 연변대학에 입학한 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하여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였다. 그 이후 연변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연구와 교육에 힘쓰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이동렬 2019).

25) 최윤갑(崔允甲, 1930-2022, 당시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 강좌장)은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정년까지 연변대학에 근무하며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였다(전은주 2022)

26) 현룡순(玄龍順, 1927-2009, 당시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부장)은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정년까지 연변대학에 근무하여 문학을 연구하고 『홍루몽』과 『수호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김영수 2011). 자서전에는 '현용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9월 18일: 북경대학-안병호²⁷⁾, 빙지원(憑志遠, 당시 북경대학 동방어계 조선어 교연실 조교)

9월 12일에 연변대학에서 찾아온 세 명은 모두 연변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이들과는 연변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오후에는 연변대학에서 언어학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하: 715-717). 9월 18일에는 북경대학 조선어과 교원들을 만났다. 안병호는 조한-한조 사전을 편찬 중이라고 하였다(하: 727-728).

1980년에는 중국 교육부의 초청으로 북경과 연변을 방문하였다. 7월 9일 북경대학에서 한국어의 언어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는데 6-7명의 조선어과 교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병호와 함께 2년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최응구²⁸⁾를 만날 수 있었다.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연변대학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언어학적 집중강의를 하였다.

1981년에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7월 11일에는 북경조선어학회의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였다. 같은 날 최재우가 주선하여 조선족 학자 3명과 함께 지도교수인 마쉐량²⁹⁾을 모시고 왔다(하: 781-783).³⁰⁾ 1982년 8월 23일에는 중국 조선어학회의 주최로 연변대학에서 유럽의 한국어 연구 상황과 제15차 국제 한장어 학술회의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하: 828).

1984년에는 여름에는 다시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7월 7일에 동경대학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는 동경외국어대학에 연구차 와 있던 단국대의 남풍현(南豐鉉, 1935-)이 참석하였다. 스톡홀름에 돌아온 뒤 10월

27) 안병호(安炳浩, 1929-2019, 당시 북경대학 동방어계 조선어 교연실 부교수 또는 강사)는 연변대학과 김일성대학을 거쳐 1961년부터 1996년까지 북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국어사와 관련된 많은 저서를 남겼다. <https://korea.sfl.pku.edu.cn/hyb/7/112212/1355175.htm>

28) 최응구(崔應久, 당시 북경대학 동방어계 조선어 교연실 강사)는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대학에 유학하였는데, 그때 김정일과 함께 공부하였다고 한다(하: 742).

29) 마쉐량(馬學良, 1913-1999)은 베이징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를 거쳐 중앙민족학원(현재 중앙민족대학)에서 소수민족 언어 연구에 힘썼다.

30) 마쉐량의 제자인 최재우, 권오택, 황유복 등은 중앙민족학원에 한조번역전공(현재 조선언어문화학부)이 설치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4일에는 스톡홀름대학에서 한국문학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한 한국의 대표단은 이청준(소설가), 손장순(소설가), 황동규(시인), 정현중(시인), 김병익(평론가)이었다.

조승복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보다는 한국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1986년부터는 거의 매년 한국에 방문하였다. 동시에 그가 신념처럼 지켜오던 중립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1986년 10월 15일: 한글학회-허웅, 김방한, 이현복, 김득성, 김학현(김윤경의 아들)

1986년 10월 17일: 단국대-김동욱, 남풍현

1986년에는 1984년 한국문학 세미나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 정부가 초청하여 방문한 것이었다. 10월 15일, 한글학회 모임에 김방한과 이현복 등 서울대 교수가 참석한 것을 보고 1969년 방한 때에 비해 관(官)-사(私) 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하: 917). 10월 17일에는 당시 단국대 안에 있었던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단국대 국문과의 김동욱(金東旭, 1922-1990)과 남풍현을 만났다.

1987년에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고조선 단어 ‘우거(右渠)’를 다룬 Cho(1987a)을 발표하였다.

1987년 9월 14-21일: 유창균, 변광수, 이남덕

조승복은 학술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스톡홀름대학 출신인 한국외대 변광수(卞光洙) 교수의 집에서 머물렀다. 어느날 이화여대 국문과의 이남덕(李男德, 1920-2012, 당시 정년퇴직)이³¹⁾ 찾아와 만났다. 이남덕은 박화

31) 이남덕(李男德, 1920-2012)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하다가 1986년 퇴임하였다. 저서로 『한국어 어원 연구』(4책)(1985-1986)이 있다.

자의³²⁾ 초대로 1972-1973년에 스톡홀름대학 연구소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상: 589, 하: 939-940).³³⁾

1988년에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글학회 창립 80년 기념 제3회 국제 언어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그 뒤에도 한글학회 이외의 한국어 연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1일 동안 서울에 체류하였다. 11월에는 10일 정도 북경에 머물렀다.

1988년 10월 8-12일: 스킬렌드³⁴⁾, 후스차³⁵⁾, 간노 히로오미³⁶⁾, 김영기³⁷⁾

1988년 10월 17일: 고려대-박영순, 황희영, 박병채

1988년 10월 19일: 계명대-유창균

1988년 10월 23일: 숙소-김민수, 성광수, 심재기, 최기호

1988년 11월 10, 17일: 숙소-태평무(太平武, 당시 중앙민족대학 강사)

한글학회에서는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다룬 조승복(1988)을 발표

32) 박화자(朴和慈)는 이남덕보다 10여 세 아래로,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전임 강사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다가 파리 유학을 떠났다. 이후 스웨덴으로 가 스톡홀름대학에서 1996년까지 한국어를 가르쳤다(상: 589).

33) 이남덕은 귀국한 뒤 매일같이 정보부의 호출을 받아 조승복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상: 589).

34) 윌리엄 스킬렌드(William Skillend, 1926-2010, 당시 런던대학 Senior Lecturer)는 캠브리지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워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53년 런던대학 SOAS에 설치된 한국학 Lecturer 자리에 부임한 이후로 한국어문학 연구, 특히 전근대 소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977년 유럽한국학회(AKSE: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in Europe)를 창설하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회장을 맡았다(연재훈 2021).

35) 로무알드 후스차(Romuald Huszcza, 1950-, 당시 바르샤바대학 Lecturer)는 바르샤바대학에서 일본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그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의미론과 화용론을 주로 다루었으며, 유럽한국학회(AKSE)의 창설 멤버이며 유럽 한국어 교육자협회(EAKLE: European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36)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1936-2022)는 도쿄외국어대학 몽골어과를 졸업하고 도쿄교육대학(현재 쓰쿠바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도쿄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에서 1998년까지, 이후 간다외어대학에서 2006년까지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1993년에는 한글발전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37) 김영기(金榮起, Young-Key Kim-Renaud)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버클리대와 하와이 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조지워싱턴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였다.

하였다. 17일에는 고려대 국문과를 방문하여 박영순(朴榮順, 1942-) 교수의 사회로 간단한 언어학 세미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앙대 국문과의 황희영도 참석하였다. 당시 박영순은 이중언어학회의 회장이었는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같은 날 국문과의 박병채(朴炳采, 1925-1993) 교수도 만났다(하: 982-984). 23일에는 한국이중언어학회 임원 4명이 숙소로 찾아왔다. 이때 조승복은 자신의 민족통일 촉진 수단으로서의 언어통일에 대한 생각과 김민수(金敏洙, 1926-2018) 등이 이중언어학회에서 추진 중인 디아스포라 언어 연구가 공통점이 많다고 보고,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다(하: 984-985).

10월 19일에는 계명대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유창균(兪昌均, 1924-2015)이 사회를 보았다(하: 986).³⁸⁾ 11월 중국에 방문했을 때에는 중앙민족대학의 태평무가 찾아와 한국어 연구에 필요한 참고 서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물었다(하: 1006).

조승복은 1989년 5월 11일, 서울에서 다시 한번 김민수 교수를 만나 이중언어학회의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990년의 북경 학술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1991년 7월 22-24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중언어학회 · 소련언어학회 · 모스크바교육대학 이중언어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학술대회 이후 김민수를 비롯한 고려대와 서울대의 언어학자들과 연결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1992년 5월 서울에서 다시 만나, 당시 정세상 합법적인 통일운동은 언어통일을 수단으로 하는 문화운동 외에 없다는 데에 동의하고 ‘우리말 · 우리문화 동질성 회복 추진회’(동추회)를 조직하였다. 1993년 동추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문화단체로 정식 등록되었다. 1995년 7월에는 동추회를 ‘우리말 · 우리문화 동질성 연구학회’, 나중에는 ‘우리문

38) 조승복이 1987년 도쿄외국어대학을 방문했을 때, 언어학자인 하시모토 만타로(橋本萬太郎, 1932-1987)를 만났다. 그는 조승복에게 유창균에 대해 어느나고 물으면서 “좀 독선적獨善的(ひとりよがり) 경향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승복은 하시모토가 아버지뻘 되는 유창균에 대해 아무리 제자라도 독선적 운운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였다(하: 986-987).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8살이며, 유창균은 1977년에 1년 동안 도쿄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에 객원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시모토가 말한 유창균은 동명이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 동질성 연구회(동연회)로 개칭하였다.³⁹⁾ 8월에 가톨릭대학교에서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동연회는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나이 든 교수들의 친목 단체 비슷한 것이 되었다가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조승복 특유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엘리트 의식도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변광수 2014: 29). 동추회(동연회)의 숨은 목적은 북한 학자를 밖으로 불러내 발전된 세계를 보여주어 민족통일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조승복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조승복 자신도 고집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까닭에 북한 인사와의 교류는 무위로 돌아갔다.

4) 개인적 삶

조승복은 자서전에서 “정년은퇴까지 걸어온 나의 삶(生)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리면, 나의 삶은 학문과 통일의 두 바퀴(兩輪)에 두 다리를 걸고 굴러온 생활이었다.”(하: 1041)라고 한 바 있다. 그의 삶은 학문적으로도 ‘순수한 한국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핵심이었고, 통일 또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 학문과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조승복은 일본에서도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는 한편, 미국에서도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하였다. 이는 그가 조국이 분단된 상태가 아니라 통일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53년 휴전 이후에는 통일 운동에 힘을 쏟게 된다. 그는 분단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에 바탕한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조승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통일주의

39) 김영호(2014: 43)에 따르면 연구회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처음에 대거 참여했던 국어학자나 언어학자들이 연구회의 일을 그만두면서 언어 분야의 참여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김영호(金榮鎬)는 현재 인하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동추회(동연회) 총무,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였다.

자'로 여기고 있었다. 1966년 동아일보 특과원과의 인터뷰 말미에서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統一主義者라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金鎭炫 1966)라고 한 바가 있다.

그 스스로는 어디까지나 통일주의자이고 중립주의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자신만의 관점으로 ‘조선’이라는 호칭을 쓰는⁴⁰⁾ 그는 남북 모두에서 경계의 대상이었던 듯하다. 이런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이 이현복(2015)에 나온다.

나는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그런데 자네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니 알아서 원하는 대로 처신하면 된다. 나는 남북으로 분단된 현재는 북도 남도 인정하지 않지만 남북이 통일이 되는 날 나는 기꺼이 조국을 갖게 될 것이다.

조승복은 스웨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954년에 프랑스 여성 로즈(Rose)를 만나게 된다. 로즈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스웨덴에 정착하여 스톡홀름의 고등여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조승복의 프랑스어 논문의 교정 및 비평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55년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된다. 조승복은 1959년 딸의 출산을 앞두고 스웨덴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9월 스웨덴 시민권을 얻었다. 슬하에는 딸 숙희(淑姬, Suk-hi Cho)와 아들 프레데릭(炳浩, Frédéric Cho)를 두었다.⁴¹⁾

조승복은 1989년 1월에 스톡홀름대학을 정년퇴직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아내의 소원에 따라 아내의 고향인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1993년 아내 로즈가 중병에 걸려 간병을 하게 되고, 1995년 10월에는 평생의 반려자였던 로즈가 사망하게 된다. 부인의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 사는 스웨덴 읍

40) 조승복은 휴전 이후 스웨덴에서 만난 동포들이 스스로를 ‘한국인’ 또는 ‘조선인’으로 정체화하는 것에 생경함을 느끼고 자신이 이민족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미분단 상태의 조국을 ‘조선’ 또는 ‘Korea’, 스스로를 ‘Korean’이라고 지칭하였다(상: 348).

41) 숙희와 프레데릭은 모두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다. 현재 숙희는 스톡홀름대학의 국제화 담당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프레데릭은 중국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살라로 다시 옮겨갔다. 2004년에는 우여곡절 끝에⁴²⁾ 자서전 『분단의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가 간행되었다. 이후 치매 증세로 요양시설에 머무르다가 2012년 10월 27일 읍살라에서 사망하였다. 11월 23일에는 읍살라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장례식에서 사제가 낭독한 조승복의 이력에서, 그는 평소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한다.

나는 코리안이지만 코리아에는 살아본 적이 없으며, 문화적으로는 일본인과 정서를 같이하고,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여러 해 살고 난 지금은 유럽인으로 느껴진다. (변광수 2014: 30)

이 말은 국제인인 동시에 디아스포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3. 조승복의 한국어 연구와 교육

조승복은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도 해독할 줄 아는 어학의 달인이었다.⁴³⁾ 물론 언어학자가 곧 많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승복이 철학에서 언어학 연구로 전향하게 된 것도 그가 한중일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그의 언어

42) 김영호(2014: 37-38)에 자서전 출간을 둘러싼 정황이 제시되어 있다. 본래 조승복이 생각했던 제목은 부제로 되어 있는 '단상집(斷想集)'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난해한 문장과 독자적인 맞춤법을 고칠 수 없다는 조승복의 입장에 출판을 위해 집속한 출판사들이 모두 난색을 보이며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출간이 지연되다가 결국은 자비 출판으로 간행되었다. '분단의恨'이라는 제목은 동연회의 임원진 중 한 명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43) 일본의 한국어학자 간노 히로오미는 Aütobiografio에서 그에 대해 "어학의 달인으로 유럽의 많은 언어를 이해한다. 다만 조선어는 의외로 못하고 일본어 쪽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語学の達人で、ヨーロッパの多くの言語を解する。ただし朝鮮語は案外下手で、日本語の方が上手と思われる)"라는 평을 남겼다.

학 연구 가운데 한국어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언어학 및 한국어학 지식의 배경

조승복은 스웨덴에 오기 전까지는 언어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다. 그가 일반언어학과 한국어학에 대해 공부하게 된 것은 스웨덴에 온 이후, 콜린데르 교수의 연구조수로 일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에게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느낀 것은 내 자신 조선말과 역사를 배우는 것을 금지한 일본의 식민 교육제도 하에서 공부하여온 관계로 조선 역사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민족의 운명을 논술하는 사람이 민족의 역사와 언어문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느낀 수치감羞恥感은 말로 묘사할 수 없이 컸다. (상: 286)

당시 스웨덴에는 한국어에 관한 책이 거의 없어 조승복은 일단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콜린데르의 비교언어학 수업과 함께, 음성학 수업과 ‘산스크리트와 비교 인구(印歐)언어학’ 수업도 들었다. 일반언어학에 관한 수업은 없었으나, 인도유럽 고전어 연구소에서 열린 공개강의 및 콜린데르의 집에서 열리는 주말 파티에서 만나는 언어학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상: 313-314). 그와 함께, 칼그렌이 스웨덴의 언어학자 아돌프 노렌(Adolf Noreen, 1854-1925)의 음운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북유럽의 언어학 이론과 방법도 주의하여 읽었다(상: 314-315). 한편 당시에는 아메리카 선주민 언어의 분석에서 시작된 미국 기술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방법론도 아시아 언어를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상: 316). 소련의 언어학 연구 성과를 접하기 위해 옘살라대학 러시아어과에서 러시아어도 배웠고, 1950년대 홀로도비치의 저작을 통해 한

국어에 대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⁴⁴⁾ 또한 알타이어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터키어 강좌와 함께 칼그렌 교수에게서 고대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였다(상: 316-317).

Cho(1967)의 참고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학 관련 논저가 인용되어 있다.⁴⁵⁾ 이를 통하여 그가 일반언어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책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일반언어학 및 음성학·음운론 관련 서적들도 폭넓게 섭렵하였음을 알 수 있다.

Bloomfield, L.: *Language* (1933)

Cahiers Ferdinand de Saussure

Chiba, Tsutomu: *A Study of Accent* (1935)

Firth, I. R.: *Speech and Sounds* (1948)

Forchhammer, J.: *Die Grundlage der Phonetik* (1924)

Gleason, Jr., H. A.: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1956)

Hjelmslev, L.: *Omkring sprogteoriens grundlæggelse* (1943)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1957)

Jakobson, R.: *Elements of Language* (1956)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1950)

Malmberg, B.: *Nya Vägar Inom Språkforskningen* (1958)

Marouzeau, J.: *Lexique Linguistique* (1943), *La Linguistique ou Science du Langage* (1950)

Meillet, A.: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1921)

Noreen, A.: *Vårt Språk* (2권) (1903-1907)

44) 홀로도비치의 1930년대 논문의 대강은 트루베츠크이(Николай Трубецкой, 1890-1938)의 인용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고 한다(상: 316). Cho(1967)의 참고문헌에는 홀로도비치의 저작이 4편 인용되어 있다.

45)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상 참고문헌에 인용된 논저 가운데 개별언어학은 제외하고 일반언어학과 관련된 단행본만을 제시하였다.

- Pike, K.: *Phonetics* (1944)
 Robins, R. H.: *Ancient and Medieval Grammatical Theory in Europe* (1951)
 Sapir, E.: *Language* (1921)
 de Saussure, F.: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949)
 Trager, L. & Bloch, B.: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1942)
 Trubetzkoy, N.: *Grundzüge der Phonologie* (1939)
 Weinreich, U.: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1953)

그가 한국어학과 관련하여 쓴 초기의 논저인 Cho(1954, 1967)의 참고문헌과 자신의 한국어 교수 경험을 다룬 조승복(1988: 279)의 내용을 종합하면 1950년대 후반에 그가 접할 수 있었던 한국어 관련 논저와 한국어사 자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 과학원: 『훈민정음』(1954), 『조선어 소사전』(1956), 『조선어 문법』(1960)
 김병제: 『조선어 방언학 개요』(제1권)(1959)⁴⁶⁾
 김병화 · 황윤준: 『조선어 교과서』(제1, 2권)(1954)
 김윤경: 『조선 문자 급 어학사』(1945/1954)⁴⁷⁾
 김혁제: 『국한명문신옥편』(1953)
 류렬: 「상고 조선말의 어음체계」(1958)
 리극로: 「조선어 역점 연구」(1957)
 문세영: 『신옥편』(1952), 『우리말 사전』(1953)
 방중현: 『고어 재료 사전』(2권)(1946)
 양주동: 『고가연구』(1954)
 이송녕: 『고전 문법』(1954), 『국어음운론연구』(1954), 「· ’ 음고 재론」(1959)
 이희승: 『증보 수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1953), 『초등국어문법』(1954), 『국어

46) 『조선어 방언학 개요』는 1965년에 제2권, 1975년에 제3권이 나왔으나, Cho(1967)의 초고는 1959년에 완성되었으므로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7) Cho(1954)에는 1945년판이, Cho(1967)에는 1954년판이 인용되어 있다.

- 학개설』(1956), 『국어학논고』(1959), 『국어 대사전』(1961)
-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 조선총독부 중추원: 『이두집성』(1937)
- 주시경: 『주시경 유고집』(1957)
- 최현배: 『우리말본』(1937/1954),⁴⁸⁾ 『한글잡』(1940), 「“달아”의 읽기에 대하여」(1959)
- 허용: 「경상도 방언의 성조」(1954)
- 홍기문: 『향가해석』(1956)
- 鮎貝房之進: 「借字攷(一, 二)」(1955)⁴⁹⁾
- 小倉進平: 「朝鮮語における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1938),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1940), 『朝鮮語学史』(1940), 『朝鮮語方言の研究』(상·하)(1944), 「朝鮮語の喉頭破裂音」(1953)
- 河野六郎: 「中期朝鮮語の完了時称に就いて」(1946), 「朝鮮語の過去deに就いて」(1948), 「諺文古文献の声点について」(1951), 「中期朝鮮語の時称体系に就いて」(1952)
- 崔在翊: 『朝鮮語の先生』(1924)
- 服部四郎: 「朝鮮語動詞の使役形と受身可能形」(1935), 「日本語と琉球語・朝鮮語・アルタイ語との親族關係」(1948), 『日本語の系統』(1953)
- 前間恭作: 『龍歌故語箋』(1924), 『鷄林類事麗言攷』(1925)
- Clark, E. M.: *Introduction to Spoken Korean* (Vol. I) (1948)
- Courant, M.: *Bibliographie Coréenne* (Vol. I-III) (1894-1897)
- Eckardt, A. P.: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조선어교제문집] (1923), *Der Ursprung der Koreanischen Schrift* (1926)
- Gale, I.: *Korean-English Dictionary* [한영사전] (1897),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한영대사전] (1937)

48) Cho(1954)에는 1937년판이, Cho(1967)에는 1954년판이 인용되어 있다.

49) 「借字攷」는 『朝鮮學報』 7, 8, 9호에 세 편으로 나뉘어 연재되었는데, Cho(1967: 348)에는 7, 8호만 인용되어 있어 조승복은 「借字攷」의 제3편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Junker, H.: *Koreanische Studien* (1953)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한불사전] (1880), *Grammaire Coréenne* (1881)
- Martin, S.: Korean Phonemics (1951), *Korean Morphophonemics* (1954)
- Ramstedt, G. J.: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1928), *A Korean Grammar* (193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1949)
- Underwood, H. H.: *An Introduction to Korean Spoken Language* (1914)
- Usatov, D. M. et al.: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러한사전] (1952)
-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лати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исьма [한글의 라틴 문자화에 대해] (1935),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조로사전] (1951),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조선어문법개요] (1954),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한국 및 중국어학의 문제들] (1958)

한국어사 자료: 『朝鮮館譯語』(1941), 『月印釋譜』 권17-18(1957), 『三韻聲彙』(1751), 『三國遺事』(1928), 『鷄林類事』(1925), 『三國史記』(1914), 『朴通事諺解』(1677), 『譯語類解』(1682), 『老乞大諺解』(1670), 『捷解新語』(1676), 『四聲通解』(1517), 『和漢三才圖繪』(1712), 『諺文志』(1824)⁵⁰⁾

이상의 참고문헌을 보면, 195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구할 수 있었던 한국어 관련 논저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간행된 서양인과 일본인의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간행된 연구서들도 최대한 수집하여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인지 그의 한국어 음운 연구에서는 남북한 학자들의 영향이 모두 보인다. 비슷한 시기 남북한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상대방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중립국인 스웨덴에 있었던 그는 남북한 모두의 연구 성과를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한국어사와 관련된 자료의 빈곤함은 영인본조차 제대

50) 『朝鮮館譯語』는 『東洋學報』 28-3·4 영인, 『月印釋譜』는 연세대 영인임을 밝혔으나 나머지는 저지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로 갖추기가 어려웠던 당시 외국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⁵¹⁾ 결국 조승복의 의도치 않은 지리적 위치가 그의 언어학·한국어학 지식 습득에서의 특이성을 갖게 했다고 하겠다.

2) 『조선어 음운론』(1967)⁵²⁾

조승복의 한국어 연구의 백미(白眉)는 그가 1967년에 펴낸 최초의 저서인 『조선어 음운론』, 즉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한국어 음운론을 역사적 분석과 함께 기술한 것으로, 국외에서 나온 몇 편의 서평은 있지만⁵³⁾ 한국 학계에서는 진지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다.⁵⁴⁾

먼저 이 책이 작성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서문의 전반부를 살펴보자(번역 필자).

1954년, 비에른 콜린데르 교수는 나에게 고(故) G. J. 람스테트가 주장한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친연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 이론을 검토하는 출발점은 중국어 기원으로 알려진 차용어를 배제함으로써 ‘한국어’의 언어적 굴곡을 개략적으로 그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방법론적 의도가 가장 이른 시기의 ‘순수한 한국어(pure Korean)’를 대응하는 시기의 알려진 알타이 제

51) 남한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기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古文獻이라면 例外 없이 稀觀에 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最近에 이르기까지도 代表的인 文獻들조차 그것을 利用한다는 것은 特惠에 屬하는 일이었다. 龍飛御天歌나 訓蒙字會 같은 文獻이 좀처럼 얻어 보기 어려웠던 것도 결코 오랜 옛 일은 아니다.”(李基文 1978: 2, 초고는 1959년 작성)

52) 그는 이 책의 한국어 명칭으로 조승복(1988)에서는 ‘한국어 음운 연구’, 조승복(1996-)에서는 ‘한국어 음운체계론’, 조승복(2004)에서는 ‘조선음운론’, ‘조선어 음운론’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라는 용어는 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자서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명칭이 ‘조선어 음운론’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에 따른다.

53) 이 책의 서평으로는 Tcheu[최석규](1968), Aalto(1969), Rygaloff(1969), Genzor(1971)이 있다. 간노 히로오미는 Aütobiografio에서 이 책이 “태작(駄作)이어서 그는 학자로서는 대단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駄作であり, 彼は學者としてはたいしたことはないと思う)”라고 평하였으나,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넘겨버릴 만한 저술은 분명 아니다.

54)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 책의 구성과 몇 가지 특징만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자세한 분석 및 평가는 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어와 대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임무를 방법론적으로 건전한 기반 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는 검토를 시작하면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에 기반한 한국어 음운론과 형태론에 대한 개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한국어 음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형태론적 연구, 즉 ‘문법(grammar)’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어학의 관점에서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였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나는 역사적 진화에 특히 강조점을 둔 한국어 음운론과 형태론 핸드북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런 방향에서 내 첫 번째 노력의 결과로서, 1957년에 “A Korean Grammar”라고 이름 붙여진 핸드북을 완성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그 원고’(the manuscript)로 알려졌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어의 음운론과 형태론이라는 두 가지의 분석적 부분을 각각 보다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원고의 초고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각각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과 “A Morphological and Etymological Comparison of Korean with the Known Altaic Languages”로 이름을 붙였다. 전체적인 연구 임무는 세 권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세 번째 권은 “A History of Chinese Loan Words in Korean”으로 명명될 것이었다. 이 세 번째 권은 한국어의 외래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문의 언어적 구조와 한국어를 구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계획된 세 권 가운데 첫 번째 권은 1959년에 완성되었고, 1962년에 옹살라대학에서 ‘Studia Uralica et Altaica Upsaliensia’ 시리즈로 출판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1960년 말부터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나의 관심사는 중국학 연구로부터 일본학 연구에 전념할 수 밖에 없었고, 변화된 작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일본학 연구에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책의 출간은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텍스트는 1963년에 수행한 단어 약센트에 대한 몇몇 실험적 관찰이 더해진 것을 제외하면 1959년의 초고와 동일하다. (하략)

조승복이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콜린데르 교수의 연구조수로 일하기 시작한 1953년 늦가을부터이고(상: 312-313) 이 책의 초고는 1959년

5월에 완성되었으므로(상: 318), 이 책은 그가 5년 넘게 언어학과 한국어학을 공부하면서 산출한 결과물이다. 그때까지 스웨덴에 한국학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과, 조승복이 언어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서문에서 설명하였듯이, 조승복의 언어학 연구는 한국어의 알타이 제어와의 친연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문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한국어’를 발견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예전에는 알타이어족으로 불리던 몽골, 튀르크, 통구스 세 어군이 지금은 알타이 ‘제어(languages)’로 불리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한국어는 커녕 세 어군 사이의 친족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의 언어학에서는 알타이어족설이 큰 힘을 얻고 있었고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조승복은 우랄-알타이어 가설을 주장하는 콜린데르 교수를 통해 언어학의 길을 걷게 되었으므로, 그의 관심이 한국어의 기원 쪽으로 끌린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⁵⁵⁾

그리고 본래는 ‘한국어의 음운론적 연구’와 ‘한국어와 알려진 알타이 제어의 형태론·어원론적 비교’, ‘한국어에서 중국어 차용어의 역사’ 세 권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1960년의 예측불가능한 상황(2.2절에서 기술한 일본학 교수직과 관련된)으로 인해 책의 출간이 미루어졌다는 설명이 있다.⁵⁶⁾ 이후에도 그가 한국어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늦더라도 다른 두 권의 책이 나왔을 수도 있으나, 안타깝게도 조승복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⁵⁷⁾

55) 조승복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랍스테트의 가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듯하다. 자서전에도 짤막한 언급이 있고(상: 336), 조승복(1996: 47)에도 자신이 Cho(1954)와 1958년에 간행된 스웨덴 언어학 사전에서 ‘알타이어파’ 항목을 집필하면서 한국어를 알타이어파에 분류 배속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56)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일본학 교수로서 일본(어)학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학 교수로서, 그 입장에 맞게 국제적으로도 업적을 세워야 되므로 랍스테트 학설을 분석 평가하는 연구는 시간적인 제한으로 계획대로 계속할 수가 없었다.”(조승복 1988: 283)

57) 조승복의 서간, 일기, 다른 문서로 구성된 방대한 아카이브가 2023년 11월 13일에 스톡홀름대학에서 울산대대학으로 이관되었는데(아래 링크 참조), 여기에 그의 ‘A Korean Grammar’ 원고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서문</p> <p>0. 도입</p> <p>공시적 기술(synchronic description)</p> <p>1. 전사 기호</p> <p>2. 일반적 가정</p> <p>음소론(phonemics)</p> <p>3. 음소의 분류</p> <p>4. 절대 음소</p> <p>5. 자음</p> <p>6. 양순음</p> <p>7. 치경음</p> <p>8. 연구개음</p> <p>9. 성문음</p> <p>10. 모음</p> <p>11. 음성 기술</p> <p>12. 단모음적 모음 (monophthongal vowels)</p> <p>13. 유사단모음(monophthongoids)</p> <p>14. 이중모음과 유사이중모음 (diphthong and diphthongoids)</p> <p>15. 절대 음소의 내적 구조</p> <p>16. 음절</p> <p>17. 상대 음소</p> <p>18. 단어 악센트</p> <p>19. 억양</p> <p>20. 강세, 길이, 휴지</p> <p>형태음소론(morphophonemics)</p> <p>21. 형태음소적 변화의 분류</p> <p>22. 유성음화</p>	<p>23. 경음화</p> <p>24. 격음화</p> <p>25. 비음화</p> <p>26. 설측음화</p> <p>27. 구개음화</p> <p>28. 양순음화</p> <p>29. 모음조화</p> <p>30. 연속 원격동화(/i/ 역행동화)</p> <p>통시적 기술(diachronic description)</p> <p>31. 경음 음소</p> <p>32. 유음 /r/과 /l/</p> <p>33. 자소 < ʌ >의 음가 재구</p> <p>34. 모음 유사이중모음과 단일 단모음 (vowel diphthongoids and one diphthong)</p> <p>35. 중세한국어 ㅅ 순경음의 음운론적 해석</p> <p>36. 파찰음 /ts, ts'/ 음소 계열</p> <p>37. 음소 /ʔ/</p> <p>38. 전설 모음 /i, i/</p> <p>39. 자소 < · >의 음가 재구</p> <p>40. 중세한국어 성조 현상의 해석</p> <p>41. 사이시옷</p> <p>42. 중세한국어의 모음조화</p> <p>43. 부가음과 음운론적 지위</p> <p>자소론(graphemics)</p> <p>44. 자소(grapheme)와 변이자(allograph)</p> <p>45. 표기 체계의 통시적 분석</p> <p>46. 정음 문자의 발전과 수정</p>
--	--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su.se/english/news/news-from-our-departments-and-centra/the-archive-of-the-late-professor-seung-bog-cho-handed-over-to- uppsala-university-1,692056>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1) 공시적 기술, 2) 통시적 기술, 3) 자소론의 셋으로 나뉘며 공시적 기술은 음소론과 형태음소론으로 대별된다. 언어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소리들을 음소(phoneme)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공시적으로 서로 대립하며 이루는 체계를 음운 체계라 하고, 음소들은 환경에 따라 다른 소리, 즉 변이음(allophone)으로 실현된다.⁵⁸⁾ 또 한 음소가 음절 내에서의 위치나 다른 음소와 만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을 음운 과정이라고 한다.⁵⁹⁾ 이것들을 기술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가 음소론(phonemics) 또는 음운론(phonology)이다. 한편 언어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morpheme)가 환경에 따라 다른 형식, 즉 이형태(allomorph)로 바뀌는 것을 교체(alternation)라고 하는데, 형태음소론(morphophonemics)은 이러한 교체 현상을 다루는 분야이다. 형태음소론을 음운론과 함께 다루는 것은 언어의 형식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입장かと 유사하다.

조승복이 스웨덴으로 이주한 뒤에 주로 배운 언어학 이론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로부터 시작되어 프라하 학파(Prague school)로 대표되는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학습한 일반언어학 관련서는 미국의 기술 언어학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영국·프랑스와 북유럽의 것들이 많았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공시적 기술과 함께 언어의 자율적인 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조주의의 강한 영향은 그가 그린 한국어 모음도(Cho 1967: 70)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책에서는 한국어의 자음 음소를 /ㅂ, ㄷ, ㄱ, ㅅ, ㅈ, ㅊ, ㅌ, ㅋ, ㆁ, ㅎ, ㅃ, ㄸ, ㅍ, ㅊ, ㅍ, ㅎ, ㅁ, ㄴ, ㅇ, ㄷ(ㄷ~ㄷ), ㄹ(ㄹ), ㄹ(ㄹㄹ)/의 22개로 보았다.

58) 예컨대 한국어 '고기'의 'ㄱ'은 '고'에서는 무성음 [k], '기'에서는 유성음 [g]에 가깝게 발음된다. [k]와 [g]는 음소 /ㄱ/의 변이음이라고 할 수 있다.

59) 예컨대 한국어 '술'은 [술]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ㅍ/이 종성 위치에서 /ㅂ/으로 바뀌는 음운 과정을 경험한 것이고, 한국어 '먹는'은 [명는]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파열음 /ㄱ/이 비음인 /ㄴ/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중세한국어까지 넓히면 /o, ʌ/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ɔ/은 ‘ㅅ 불규칙’을 보이는 용언 어간(‘잇-[連], 짓-[作]’ 등)의 활용을 설명하기 위해 음소로도 도입하였다. /ɛ/과 관련된 여러 음소로 /r/ 외에 /t/, /l/ 등을 제시한 것과, 오늘날에는 ‘ㄷ 불규칙’을 보이는 용언 어간(‘걸-[步], 묻-[問]’ 등)의 종성을 별개의 음소로 파악한 것은 상당히 급진적이다. 『조선어 음운론』에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북한 학자들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암시하듯 문자론 부분에서 북한의 ‘조선어 신철자법’의 6개 자모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자서전에서 김수경과 그의 영향에 대해 서술한 다음 대목이 주목된다.

언어학자 김수경 씨와는 만나 본 일이 없다. 그의 이름은 동경제국대학 재학 조선인 학생명부에서 보았을 뿐이었다. 그의 학자적 소문은 해방 후, 일본 언어학자 고-노록구로-(河野六郎) 씨한테서 들었다. [...] 내가 (조선음운론)을 쓰기 시작할 때 河野 씨의 말을 기억하고 북쪽에서 김두봉(金科奉)의 이름으로 발표된 金壽卿의 “六字”Six New letters를 읽고, 그의 저작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나의 조선어 음운론, page 341 참조). 50년대 하반기의 소련 언어학 잡지, <Voprosy jazykoznanija>에 발표된 소련언어학자 A. Cholodovic(인용자:Холодович)의 논문에 金 씨가 자주 인용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학술적 정보를 통하여 金 씨의 저작에 주목하였다. 그 당시에는 북쪽에서 출판할 때에 저자의 개인 명이 사용되지 못하였다. 옛날 스탈린Stalin 식을 따라 김일성 이외에는 저작을 개인 명으로 발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특징을 고려하여야만 金 씨와 같은 학자들의 숨은 공로를 감상할 수 있었다. (상: 164-165)

1948년 제정된 북한의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추가된 6개의 글자들은 마치 형태음소론의 형태음소나 생성음운론의 기저형과 유사한 개념이다.⁶⁰⁾

60) 예컨대 ‘걸고-걸으니-걸어’가 아니라, ‘것고-것으니-것어’와 같이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형태주의 표기법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高永根(1989), 고영근(1993)과 板垣竜太(2021, 제Ⅱ장) 참조.

[w]로 보았다. 아래아는 음소로 보고, 나타나는 환경을 고려하여 그 음가를 [a]에 가까운 후설모음인 [ɔ]로 추정하였다.

소실 문자의 음가 추정은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주된 주제 중 하나였다. 오늘날 한국어사 학계의 통설인 이기문(1998)에서 ㅂ, ㅃ계 합용병서는 어두 자음군을, <ㅅ>는 유성치경마찰음 [z]를, <ㄱ, ㅋ> 등은 실제 하향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을, <ㅍ>은 양순유성마찰음 [β]를 나타내는 표기라고 본다. 아래아의 음가에 대한 추정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두 자음군이나 중모음 표기에 대해서는 현대어적인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옛 문헌의 출현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음가 추정을 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이처럼 문헌상 출현 환경을 정밀하게 기술하여 음가를 추정하는 그의 방법론은 몇 년 뒤에 간행된 Cho(1970)에서 계승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소론이 나온다. 일반적인 음운론 개론서에서는 문자와 관련된 항목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소론의 설정은 독특하다. 저자는 한글(이 책에서는 ‘정음’) 창제 당시의 기본자로부터 시작하여 제자 원리와 가획자, 각자병서 등을 설명하고 정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수정되었는지를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중세의 한자음 치음 표기(ㅅ, ㅆ, ㅈ, ㅊ, ㅊ, ㅅ, ㅆ, ㅈ, ㅊ, ㅊ 등)나 일본어 표기에 쓰인 합용병서(ㅃ, ㅆ 등)와 함께 1948년 북한의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도입된 절음부()나 불규칙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새 문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철자법에서 도입된 자모는 그가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을 설명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 음운론』은 당시에 스웨덴에서 접할 수 있었던 남북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음운론에 대해 공시적·통시적으로 충실히 기술한 저작이다. 한국어 음소 체계의 설정에 있어서는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이 잘 드러나고, 소실 문자의 음가 추정이나 문자론에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 및 문자 연구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어학사적으로 『조선어 음운론』은 한국어 음운론에 대한 최초의 영문 단행본으로,⁶¹⁾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에서 이루어진, 치밀하게 언어 현상을 관찰하여 자
신만의 견해를 제시한 선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 밖의 한국어학 연구

(1) 고대 한국어

그의 고대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차자표기 및 초기 이두(변체한문)와 관
련된 것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대 한국어 어휘를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Cho(1990)에서는 이두에 대해 소개하였다. 음독과 훈독의 개념을 밝
히고, 이두에서 한자를 어떤 식으로 변용하는지와 이두자의 조합을 설명하
였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자, 이두, 훈민정음이 표기 체계로 쓰였
으며, 이를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어(한문)와 한국어(여성·서민용),
공문서(이두)로 나뉜다고 하였다. Cho(1984a)에서는 고구려 성벽 석각문
과 임신서기석 등의 초기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어 문어가 한국어에 들어온
이후 6세기까지 한국어 구조에 영향 받지 않은 것(한문)과 구조적으로 한국
어에 동화된 것(향찰·이문·토 등으로 알려진)으로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1980년대에 발표한 한국어학 관련 연구는 고대 한국어의 어휘와 관련된
것이 많다. Cho(1984b)에서는 ‘서방(西房)’이라는 2자 한자어가 사위를 가
리키는 데 쓰이는 환유에 대해 다루었다.⁶²⁾ 그 과정에서 중국어 차용어인
‘서방’이 고구려의 혼례 관습을 반영한 것이며 널리 쓰임에 따라 ‘사위’의 뜻
으로 변했다고 보았다. ‘서방을 가다’, ‘서방을 맞다’와 같이 대격조사를 동반
하는 예에서는 자립 형태소로 쓰이지만 ‘서방가다’, ‘서방맞다’에서는 의존
형태소로 나타나 확장된 동사 어간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Cho(1987a)에서는 위만조선의 제3대 왕이라고 하는 ‘우거(右渠)’가 고유
명사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씨족의 생활공동체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61) 1988년 1월에 강연차 하와이에 갔던 조승복은 하와이대학의 손호민 교수에게서 『조선어 음운론』
을 오랫동안 대학원 교재로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상: 320).

62)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는 ‘서방’의 원어를 ‘書房’으로 본다. 그러나 ‘西房’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뜻하는 보통명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右渠’의 이표기(異表記)로 ‘優居’, ‘位居’, ‘尉九台’ 등이 나타난다고 하고, 이것은 ‘웃 ㄹ’로 볼 수 있으며 [*u], [*ʈ], [*gʌ]라는 세 가지 어원(etymon)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u]는 원시시대 씨족 생활공동체의 집터, [*ʈ]는 사이시옷과 같은 것, [*gʌ]는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하였다. 이 논의는 Cho(1987b)에서 고대 일본어의 ‘udzika’를 고구려어의 차용어로 보면서 ‘udzika’의 *u가 *u, ʈ.gʌ의 *u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로 이어졌다.

조승복(1996ㄱ)은 9세기 후반에 편찬된 아랍 상인의 여행기 몇 편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신라에 대한 언급을 정리한 것이다. 종합하면 아랍 상인들의 여행기에서 신라는 풍광이 매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이며 그 민족은 활동력이 왕성하다고 하였다. 해당 여행기들에서는 신라가 섬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아랍어에서는 섬과 반도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순수한 한국어학적 연구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Syla-Schyla’로 표기된 나라 이름을 ‘신라’를 가리키는 추정했다는 점에서 신라 국호의 외국 표기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승복(2006)은 2003년에 서울에서 열린 ‘계림유사(鷄林類事) 900주년 기념 고려조어(高麗朝語) 연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먼저 『계림유사』의 서론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뒤에서는 『계림유사』의 일부 표기와 그것이 보여주는 당시 중국어 문어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손목(孫穆)이 표기한 12세기 한국어에는 고유어와 중국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섞여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明日曰 轄載’에서 ‘轄載’는 [xaʔdä]~[xatdä]로 재구되며, 이 단어는 고조선어 <아>[a]와 (중국어의) 서북 방언 [d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a]:[i]:[ə]가 *아대~아재:이대~이재:어대~어재와 같이 ‘과거-현재-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주장이기는 하나, 흔히 고유어로 인식되는 ‘때(<때>)’가 고대 중국어의 서북방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승복의 1980년대 이후 한국어 연구는 여전히 ‘순수한 한국어’를 찾는 그의 여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³⁾ 한자어의 차용 및 확장 과정

연구나 고조선어에 대한 연구 모두 한국어의 발달 과정에서 한문(한자)에 의한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는 언어가 사회 및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각 시대의 상황 및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검토하는 등 전적으로 언어학적인 연구는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그의 학문적인 배경에 철학이 있고, 스웨덴에 자리잡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서양의 사상사를 강의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⁶⁴⁾

(2) 언어 동질성 회복

조승복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민족 통일에 앞선 언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의 삶에서 학문과 통일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이른 시기인 Cho(1982)에서는 중국에 사는 연변 조선족의 언어와 그 형성에 대해 개관하면서 연변 조선어 내부의 언어적인 차이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연변 조선어에 대한 이른 시기의 영어 논문일 뿐만 아니라, 이질화되어 가는 한국어의 문제를 일찍

63) 조승복은 1985년 부다페스트대학의 초청을 받아 헝가리에 갔다. 초청을 수락한 배경으로 “냉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헝가리가 극동언어(極東言語) 특히 알타이어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명성이 높은 나라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말과 기원을 같이 하는 말, 몽고어 研究에 전통이 있는 나라였다. 우리말의 기원을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될 듯하여 초대 수락하기로 하였다.”(하: 903)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기원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64) 조승복의 한국어학 연구가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76년 일본에서 한 달 남짓 지내면서 쓰키시마 히로시(築島裕, 1925-2011),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1929-)를 비롯한 일본의 훈점(訓點), 한문에 토를 달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읽는 방법 연구자들을 만나고 고잔지(高山寺)에서 이루어진 전적(典籍) 종합조사에도 참석하였다. 그 목적은 한문을 자국어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비롯한 실제 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에는 조선 한문에는 일본의 훈점과 같은 언어 자료가 없어 낙심했다는 언급 뒤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어 눈길을 끈다. “築島 교수의 조사단의 조사사업을 구경하고, 25년이나 지난 2000-2001년에 일본의 訓點과 비슷한 구두점(句讀點) 표기법(表記法)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안심하였다. 각필문헌(角筆文獻)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듣고 안심하였다. 각필(角筆)로 구두점을 표시한 방법이 조선을 통하여 일본에 건너갔다고 하니, 문법적으로 읽는 방법은 일본보다 먼저 고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필이라는 것은 붓과 같이 쓰기 위해 사용되어진 도구였다. 도구의 끝이 뾰족한 것이었다고 상상한다. 뾰족한 끝으로 구두점이 있을 자리에 새겼다. 붓으로 쓰면, 검은 묵(墨)이 남게 되어 구두점(句讀點)의 자리가 선명하게 남지만, 각필로 새긴 곳은 무색이므로 자리가 명확하지가 않다.”(하: 638-639)

부터 포착한 업적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동추회(동연회) 활동과 함께 몇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Cho(1991)의 제목은 ‘새 시대의 한국(조선)어’로, 그 목적은 1945년 이전 한국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글의 말미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기존 언어 정책의 바탕에 있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대안적인 언어 정책이 작동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지정학적인 평화 통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위한 대안적인 언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망하지만 결국에 통일이 되어 민주 국가를 형성한다면 미래의 통일 한국의 표준어를 특징지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조승복(1996)에는 그의 통일관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민족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 화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이것은 언어·문화 동질성의 회복에 의거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과도기적 타협안, 언어 차이에 대한 계몽운동, 자유왕래, 출판물 열독과 방송 청취, 편지 교환 등의 예방정책과 건설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화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길을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언어 동질성 회복에 대한 제안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한국어정책론 또는 한국어학사의 영역에서 재음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거쳐 민주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전제와,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전망할 때 통찰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다.

4) 한국어 교육

북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조승복이 스웨덴에 온 뒤로 시작되었다. 그는 1954년부터 콜린데르 교수의 연구조수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중국어를 가르치던 말름크비스트가 1956년에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어 강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조승복은 1957년부터 그 자리를 이어받는 한편, 일본어와 한국어까지 가르치게 되었다(상: 377). 그 이후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조승복 1988).

① 제1단계(1957-1962)

1957년 가을 학기-1962년: 연 평균 수강생 2-3명(중국어 6명, 일본어 4명)

1962년 봄: 극동 3개 국어(한·중·일)가 옅살라 대학에서 정식 시험 과목으로 인정됨

1963년: 스톡홀름 대학으로 옮겨 중국어과, 일본어과, 한국어과가 설립됨

② 제2단계(1963-1974)⁶⁵⁾

1963-1974년: 연 평균 수강생 4-5명

1974년: 최초의 박사 배출(Staffan Rosén, *A Study of Tones and Tonemarks in Middle Korean*)

③ 제3단계(1975-1988)

보존기(1975-1980): 연 평균 수강생 5-6명, 시간강사 2명

생존 위기(1981-1984): 한국어과 폐지가 공개적으로 논의됨. 중국어와 일본어의 인기를 이용, 극동 지역 프로그램(East Asia Area Studies Program)을 종합적 연구 과정(integrated study)으로 만들어 한국어과 유지를 위한 최소 학생 수(6명)를 확보함.

진흥기(1985-1988):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진출로 인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늘게 됨.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장학금도 중요한 역할을 함.

1987년: 두 번째 한국어학 박사 배출(변광수, *Korean-Swedish Interphonology*)

65) Anders(1996: 270)에서는 1970년대부터 Rosén이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 시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를 학술적인 주제로 삼으며 다른 동양 언어들을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 없이도 한국어가 교수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상이 조승복(1988)에 정리되어 있는 1957년부터 1988년까지의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이다. 이 글의 말미에서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한국어과 정교수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그의 자서전에도 1986년과 1988년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학술진흥재단에 방문하여 한국학 강좌 및 정교수직 설치에 필요한 기금을 기부할 것을 제차 요청한 이야기가 나온다(하: 913-915, 980-982).

1989년에는 조승복이 염원하던 한국학 정교수직이 설치되었는데, 첫 번째 교수직에는 그의 제자인 Staffan Rosén이 취임하여 2009년까지 자리를 지켰다.⁶⁶⁾ 이후 학생 수가 늘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최고 약 40명 정도까지 한국어를 수강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는데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입양된 많은 한국계 북유럽인들이 지닌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었다(Anders 1996: 271). 2000년대에는 학생 수의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다. 2012년 가을 학기에는 한국어 강의 수강생 수가 6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18년 가을학기부터 2019년 가을학기까지는 수강생 수가 평균 129명이나 되었다. 여기에는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인류학·심리학·경영·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Häussler 2019: 34-35). 현재 스톡홀름대학에는 한국 언어 문화 분야의 교수인 소냐 호이슬러(Sonja Häussler), 한국 정치 경제 분야의 Senior lecturer인 가브리엘 욘손(Gabriel Jonsson), 한국어 강사인 강경숙과 김은아가 있다.⁶⁷⁾

조승복은 스웨덴에서 우연한 기회에 한중일 3개 국어의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웁살라대학에서 스톡홀름대학으로 옮겨가면서도 그 강의를 계속해

66) 한국어의 역사언어학 외에 그의 주된 연구 분야는 한국사와 실크로드를 통한 중앙아시아와 한민족 교류사였다. 그 외에 유럽한국학회(AKSE)의 창립 멤버로도 활약하며 1987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스톡홀름에서 AKSE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67) 이 단락의 내용은 주로 스톡홀름대학의 아시아중동학과(Department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의 한국언어문화(Korean Language and Culture) 전공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Anders(1996), Häussler(2019) 참조. <https://www.su.se/department-of-asian-and-middle-eastern-studies/about-the-department/about-us/korean-language-and-culture-at-stockholm-university-1,533544>

서 유지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 한국어 강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동양 언어 연구소(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소장 및 일본학과 주임 교수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어 강좌를 보전하는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있었기에 스웨덴, 나아가 북유럽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맺음말

이제까지 조승복의 삶과 한국어 연구 및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이 한 편의 글로 완전히 담아 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만주국에서 태어나 제국주의 일본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학문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으나 결국 쫓겨나다시피 스웨덴으로 건너가 평생을 살았던 한 언어학자의 삶에 대해 독자들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면 다행이겠다.

조승복의 집요함과 강직한 성격은 평생 숙원이었던 통일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는 철학에서 언어학, 중국학에서 일본학으로 전공을 전환해야만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연구에도 이런저런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학의 불모지였던 스웨덴에서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승복 개인의 우수함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의 한국어 연구·교육에 대해서는 20세기 전반기 외국, 특히 북유럽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연구·교육의 선구적인 성과로 인정하고, 앞으로 Cho(1967)를 번역하는 등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언어학 연구 가운데 중국어와 일본어 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못하였다. 그는 스웨덴에 자리 잡은 뒤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언어 학자를 만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일본어와 관련해서는 Cho(1970)과 같은

방대한 저작이 있으므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까지 그의 논저 목록(bibliography)이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아쉬운 일이다.⁶⁸⁾ 앞으로도 그의 삶과 연구에 대해 학계의 본격적인 조명이 이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68) 조승복의 정년 기념으로 간행된 Edström(1991)에도 논저 목록은 없다. 직접 작성한 연보가 실려 있는 조승복(1996-: 52)에도 논문에 대해서는 “主로, 東洋 三個國(中, 日, 韓)의 言語, 社會 및 思想에 관한 論文과 一般 및 比較言語學에 관한 論評으로 되어 있다. 綜合하면 約 60余 篇이 된다. 發表用語는 主로 英語, 其他 獨, 佛, 瑞, 日, 韓語로도 썼다. 韓國어 論文은 單一 篇뿐이다.”라는 언급이 전부일 따름이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그의 논저 목록을 정리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글 가운데 북유럽과 독일의 학술지에 게재한 서평은 현재로서는 서지정보조차 입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힘닿는 데까지 그의 논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추후 별고를 통해 그 목록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 참고문헌

- 高永根,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연구」, 『정신문화연구』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71-192.
- 고영근, 「북한의 문자개혁에 관한 연구」, 주시경연구소 편, 『주시경학보』 12, 서울: 탑출판사, 1993, 24-69.
- 金聖悅, 「活氣 玆 유럽의 韓國研究」, 『동아일보』 1970년 4월 22일.
- 김영수, 「저명한 교육자이며 작가인 현몽선 선생을 추모하여」, 2011.
김호웅 블로그 <http://www.zoglo.net/blog/read/jinhuxiong/9578>
- 김영호,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을 읽고」,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2014.
- 金鎭炫, 「코리안의 鼓動 25」, 『東亞日報』 1966년 7월 9일.
- 김태우, 「A. 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한국어 문법: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5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65-296쪽.
- _____,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문학의 성립과 A. A. 홀로도비치」,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ㄱ, 37-64쪽.
- _____, 「20세기 전반기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세한국어 연구: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ㄴ, 197-232쪽.
- 金泰翼, 「관심 끄는 두 국제학술회의」, 『朝鮮日報』 1987년 9월 10일.
- 박노자,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겨레』 2018년 7월 17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3676.html>
- 박노자, 「차별,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의 ‘어머니」, 『박노자 네이버 블로그』 2024년 3월 30일.
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223400509809
- 박정진, 「유럽·東區서 ‘韓國學’ 연구 붐」, 『경향신문』 1987년 9월 11일.
- 변광수, 「북유럽에 한국학 심은 ‘외로운 통일주의자’: [가신이의 발자취] 스웨덴 스톡홀름대 조승복 교수를 기리며」, 『한겨레』 2012년 11월 8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obituary/559712.html>
- _____, 「반전평화 운동과 한국인: 유럽의 한국학자 조승복의 삶」, 『국제한국사학』 2, 국제한국사학회, 2014, 1-35쪽.
- 심재훈, 「숨겨진 거인 조승복」 1-10, 『역사책의 감동, 역사의 이면』(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2023-2024, <https://contents.premium.naver.com/historybooks/knowledge>
- 연재훈, 「영국 한국학의 탄생과 발전: 인물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263-281쪽.
- 李基文,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國語學 研究選書 3), 서울: 탑출판사, 1978.
- 이기문, 『(新訂版) 國語史概說』, 파주: 태학사, 1998.
- 이동렬, 「김호웅의 논픽션 ‘정판룡, 그 두둑한 배짱과 선견지명」, 『동북아신문』 2019년 3월 25일,
<https://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9>
- 이현복, 「고루 이 크로 선생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며」, 『고루 소식』 6, 고루 이크로 박사 기념사업회, 2015.
- 임경화, 「중립 지향의 재일조선인사의 기원을 찾아서: 북구의 언어학자 조승복의 어떤 전후사」, 『인문논총』 79-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249-282쪽.

- 전은주, 『중국 조선어학계의 거목, 최윤갑』, 『동북아신문』 2022년 12월 27일,
<https://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59>
-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선징』, 서울: 휴머니스트, 2019.
- 조승복,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수와 연구 현황』, 『한글』 201·202, 한글학회, 1988, 271-290쪽.
- _____, 『9세기 상반기의 아라브 상인들이 듣고 상상한 통일 신라』, 『남방문화』 2, 남방문화연구회, 1996 7, 126-134쪽.
- _____, 『통일의 길』,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4, 1-54쪽.
- _____, 『분단의恨: 과거와 미래(趙承福의 斷想集)』 상·하, 대구: 케리그마, 2004.
- _____, 『鷄林類事 研究에 대하여』, 한국국어교육학회 편, 『高麗朝語研究 論文集』(『鷄林類事』900周年 紀念 國際學術大會), 서울: 이화문화, 2006, 433-453쪽.
- 칼리나, 『유.엔. 마주르(Ю.Н. Мазур)의 생애와 한국어의 품사 체계』, 『한국학연구』 66,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22, 99-125쪽.
- _____, 『엘.베. 니콜스키(Л.Б. Никольский)와 『한국어의 보조적인 단어』』, 『한국학연구』 7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229-260쪽.
- 허인영, 『외학서에 대한 한국어학적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연구』 34, 국어사학회, 2022, 69-102쪽.
- 黃希榮, 『北歐의 東洋學: 스웨덴 ‘옵사라’대를 다녀와서』, 『東亞日報』 1964년 10월 20일.
- _____, 『最近 學界를 둘러보고: 貧弱한 유럽의 韓國學연구』, 『동아일보』 1973년 8월 11일.
- 羅常培, 『唐五代西北方音』, 上海: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33.
- 板垣竜太, 『北に渡った言語学者: 金壽卿1918-2000』, 京都: 人文書院, 2021[이타가키 류타 지음, 고영진·임경화 옮김,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서울: 푸른역사, 2024].
- 趙承福, 『〈朝鮮〉(tsosen)·〈朝〉(asa)·〈漢〉(aya)に就いて』, 築島裕博士還曆記念會 編, 『国語学論集』(築島裕博士還曆記念), 東京: 明治書院, 1986, 534-562쪽.
- 福島邦道, 『(書評) 趙承福著『朝鮮資料による徳川時代の音韻研究』』, 『国語学』 91, 国語学会, 1972, 83-90쪽.
- Aalto, Pentti, “Seung-Bog Cho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Finnisch-Ugrische Forschungen* 37, 1969, pp.173-176.
- Cho, Seung-bog, “Uralic and Altaic,” *Svenska Landsmål och Svenskt Folkliiv* 1953-54, 1954, pp.171-182.
- _____,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67.
- _____, *A Phonological Study of Early Modern Japanese: On the basis of the Korean source-materials I-II* (Acta Universitatis Stockholmiensis. Stockholm Oriental Studies 8, 9),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70.
- _____, “The Koreans in China and their language,” *Journal of Finno-Ugric Research in Sweden* 5, 1982, pp.23-56.
- _____, “The Chinese language in Archaic Korean,” Otto Gschwantler, Karoly Redei and Hermann Reichert (eds.), *Linguistica et Philologica: Gedenkschrift für Björn Collinder (1894-1983)* (Philologica Germanica Bd. 6), Vienna, 1984a, pp.35-64.

- _____, "On the Sino-Korean metonym of Koguryŏ (1), /səbang/ (2) [səbaŋ] 'son-in-law,'" *Orientalia Suecana* 33, 1984b, pp.63-70.
- _____, "Reflection upon the Ko Tsosen Word /uk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87a, 1-30쪽.
- _____, "On the ancient Japanese word *uzika*," *Studier i modern språkvetenskap*, Ny serie, Volym 8 (Stockholm Studies in Modern Philology New Series 8), Stockholm, 1987b, pp.151-164.
- _____, "On Idu." *Rocznik Orientalistyczny* 46-2, 1990, pp.23-32.
- _____, "The Korean Language of the New Era," 『이중언어학회지』 8, 한국이중언어학회, 1991, 154-194쪽.
- _____, *En korean i folkhemmet*, Stockholm: Podium distribution, 2014.
- Edström, Bert (ed.), *Language and society in East Asia*, Stockholm: Center for Pacific Asia Studies, Stockholm University, 1991.
- Genzor, Jozef, "Seung-Bog CHO: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Studia Uralica et Altaica Upsaliensia, Uppsala, Almqvist and Wiksells 1967.13, 418 pp." *AAS* 7, 1971, p.149.
- Häussler, Sonja, "Diversification of Korean studies at Stockholm University: From linguistics to cultural and social studies," *Orientaliska Studier* 159, 2019, pp.30-50.
- Karlsson, Anders, "Theory and Practice: Discrepancies in Supply and Deman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weden," 『한국어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6, 269-275쪽.
- Manaster-Ramer, Alexis, "The Korean Precursors of Generative Phonology," In: Diane Brentari, Gary N. Larson, and Lynn A. MacLeod (ed.), *The Joy of Grammar: A festschrift in honor of James D. McCawle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2, pp.213-223.
- Rygaloff, A., "Seung-Bog Cho,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Uppsala, 1967," *La Linguistique* 5.2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9, pp.158-159.
- Tcheu, Soc-Kiou[최석규], "Compte-rendu: Seung-bog CHO,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63, 1968, pp.339-341.
- Холодович, А. А., "О проекте реформы корей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1949 г.," Холодович, А. А. (ред.), *Вопросы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58, pp.19-31.

Seung-bog Cho (1922-2012)

A Linguist's Journey to Scandinavia and His Contributions on Korean Linguistics

Heo, Inyeong*

Seung-bog Cho (1922-2012) was a linguist who was born in Manchuria in the early 20th century, lived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in research and teaching in Sweden. His life and contributions have long been under-researched. His life itself shows the turbulent twists and turns of modern history, and his work in Korean linguistics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linguistics developed in the South. He is also a pione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ern Europe and deserves to be reexamined.

First, we examine how he came to switch from philosophy to linguistics. It was encouraged by Professor Collinder, and his desire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of Korean people through lectures and talks about Korea and the Korean language. Next, we summarize the people he met in Korean linguistics and the movement to restore linguistic homogeneity that he worked on in his later years.

His knowledge of Korean linguistics was different from that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was conducted in a closed circle in the 1950s and 1960s, as he was familiar with the achieve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is knowledge is reflected in his book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1967). In addition, his advocacy for restoring linguistic homogeneity and Korean language

*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ducation had a major impact on the reunification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ern Europe.

Key words: Seung-bog Cho, Björn Collinder, Bernhard Karlgren, Sweden,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Korean studies in northern Europ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ern Europe